

실패한 성장소설로서의 《倪煥之》 : 교육 이상의 역설과 근대적 주체의 소진*

이 용 태**

<目 次>

- | | |
|--------------------------|----------------------|
| I. 서론 | III. 교육 이상과 잔인한 낙관주의 |
| II. 실패한 성장소설로서의
《倪煥之》 | IV. 계몽의 좌절과 주체의 소진 |
| | V. 결론 |

<중문초록>

本文擬將葉聖陶的長篇小說《倪煥之》解讀為一部〈失敗的成長小說〉,而非一般意義上的成長小說. 作品中的主人公倪煥之是一位懷抱現代教育理想的知識分子,他在與現實反覆衝突的過程中逐漸走向耗竭. 既有研究多從成長小說的可能性,或理想與現實之間的矛盾來討論《倪煥之》;本文則試圖從教育理想本身所具有的悖論性出發,分析倪煥之失敗的深層原因.

對倪煥之而言,教育並非單純的職業,而是一種能夠實現自我完成與社會改革的現代實踐,也是五四新文化運動以後中國知識分子所共同懷抱的啟蒙樂觀主義之表徵. 然而,這一教育理想既是支撐他的希望,同時也成為將他推向反覆挫敗與主體耗竭的力量. 為了說明這一悖論,本文參照 Lauren Berlant 的〈殘酷樂觀主義〉概念.

*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對倪煥之而言,教育是承諾美好生活與美好社會的未來對象;然而,當這一承諾無法實現時,他的整個生命便隨之動搖.他試圖通過教育改變學生、學校,乃至鄉村社會,但教師群體的冷漠與嘲諷、學生之間的身分秩序、組織化的社會結構以及革命運動的暴力性,都反覆使他的啟蒙語言陷入無力.因此,倪煥之的悲劇並非源於個人的軟弱,而是教育所承載的社會改造希望在具體現實中遭遇挫敗的結果.最終,《倪煥之》雖具有成長小說的外在形式,卻無法抵達成熟與統合;它以悲劇性的方式呈現了五四以後啟蒙樂觀主義的限度,以及現代主體形成的不可能性.

1. 서론

1928년 《教育雜誌》에 연재된 葉聖陶(이하 ‘엽성도’)¹⁾의 장편소설 《倪煥之》²⁾(이하 《예환지》)는 5·4 신문화운동 이후 중국 지식인이 품었던 교육 계몽의 이상과 그 좌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예환지는 청소년기에 형성한 계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소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 결혼과 혁명 참여를 거치면서 자신의 이상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려 한다. 이러한 서사적 흐름은 외견상 성

- 1) 본고는 현대 중국의 인명과 작품명을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인지한다. 다만 본고가 직접 대화하는 국내 선행연구에 葉聖陶와 《倪煥之》가 각각 ‘엽성도’와 《예환지》로 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한국 한자음 표기를 사용한다. 최초 출현시 한자를 병기하며, 이 원칙을 논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되, 서양 학자명은 원음 표기를 유지하며 이 원칙을 논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 2) 본고가 인용하는 《예환지》원문은 모두 이 판본에 따르며, 이하 인용은 면주만 표기한다. 원래 《예환지》는 1929년 開明書店 초판(전 30장) 이후 1953년 人民文學出版社판에서 혁명 관련 서술과 결말이 대폭 삭제·수정된 바 있어, 판본에 따라 후반부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본고의 논의는 특히 왕락산의 죽음과 예환지의 소진을 다루는 후반부에 의존하므로, 삭제 이전의 완본 계열을 底本으로 삼은 葉聖陶集 第三卷(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을 인용 판본으로 택하였다.

장소설의 구조를 따르는 듯하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세 방향에서 《예환지》를 논의해 왔다. 첫째, 이 작품을 5·4 이후 교육 개혁과 신교육 운동의 문제를 반영한 교육소설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 《예환지》는 근대 교육 제도와 교사 지식인의 이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교육사적 접근만으로는 예환지가 교육 이상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 이유까지 설명하기 어렵다.³⁾ 둘째, 예환지의 삶을 학교 교육, 사회 경험, 결혼, 혁명 참여 등으로 확장되는 성장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박재범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환지》를 성장소설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바 있다.⁴⁾ 셋째, 작품의 결말에 주목하여 이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 또는 환멸의 서사로 해석하는 관점이다.⁵⁾ 이들 연구는 작품의 교육적·계몽적 성격과 주인공의 좌절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예환지가 왜 좌절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끝내 교육 이상을 포기하지 못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 이상이 예환지를 지탱하는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그를 반복적인 좌절과 소진으로 몰아가는 역설적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환지》를 ‘실패한 성장소설’로 규정하고, 그 실패의 동력을 교육 이상이 지닌 잔인한 낙관의 구조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환지는 교육 현장, 가정, 향촌 사회, 혁명 공간을 차례로 통과하지만, 그 경험은 성숙이나 현실과의 화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환멸과 소진,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는 개인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의 열망과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다.

3) 潘懋元, 〈从中国现代教育史的角度看《倪煥之》〉, 《厦门大学学报》1963年 第1期, 69-85頁, 劉增人·馮光廉 編, 《葉聖陶研究資料》,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522頁에 재수록. 본문 인용은 522頁.

4) 박재범, 〈葉紹鈞의 《倪煥之》, 成長小說로서의 可能性〉, 《中國現代文學》제15호, 1998, 58쪽 참조.

5) 박재범, 같은 논문, 67쪽. 박재범은 黃修己가 《倪煥之》를 ‘幻滅小說’로 규정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20세기 초 중국 사회는 전통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근대적 가치의 수용이라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신문화운동은 과학과 민주, 개인의 각성, 교육을 통한 인간 개조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5·4 신문화운동의 계몽 담론은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인간 개조와 의식 전환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周策縱(이하 ‘주책중’)은 5·4운동을 “지적·사회정치적 운동”으로서 독립, 개인 해방, 사회·문화 재건을 목표로 한 과정으로 보았고,⁶⁾ 林毓生(이하 ‘임육생’)은 이 시기 지식인들이 전통 질서의 위기를 개인 의식과 문화 전체의 전환 문제로 인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교 제도나 직업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인간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실천으로 이해되었다. 나아가 Vera Schwarcz(이하 ‘슈워츠’)는 5·4 계몽의 유산을 추적하면서, 개인 해방과 의식 개조라는 계몽의 이상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좌절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⁸⁾

예환지가 “모든 희망이 교육에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낙관을 반영한다. 그에게 교육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기실현의 방식이

6) Chow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1-2 참조. “a combined intellectual and sociopolitical movement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the emancipat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rebuilding of society and culture”

7) Lin Yu-sheng,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x-xi 참조. “...the notion of the integrated wholeness of culture... conscious ideas could play a decisive role in transforming human life.”

8) Vera Schwarcz, *The Chines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and the Legacy of the May Fourth Movement of 191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xii. “The longer I lived in China, the more I understood the ways in which the May Fourth legacy served as a troublesome reminder of China's incomplete emancipation from its feudal past.”, “Their insistence that the May Fourth goals of science and democracy have yet to be achieved in the People's Republic has made them subject to repeated waves of persecution.”

며, 동시에 사회 개혁과 민족적 갱신을 가능하게 할 실천적 매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희망이 끝내 실현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환지가 마주한 학교는 이상적 교육 공동체가 아니라 냉소와 무관심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학생들은 그의 열정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향촌 사회의 구습과 이해관계 역시 그의 실천을 가로막는다.

이 지점에서 Lauren Berlant(이하 ‘벌랜트’)의 ‘잔인한 낙관주의’ 개념은 《예환지》를 새롭게 읽기 위한 유효한 단서를 제공한다. 벌랜트에 따르면 잔인한 낙관주의란 주체가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실제로는 그 주체의 삶을 가로막거나 소진시키는 관계를 가리킨다.⁹⁾ 벌랜트의 논의는 일차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정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벌랜트가 강조하는 것은 특정 시대의 제도 자체라기보다, 주체가 ‘좋은 삶’을 약속하는 대상에 애착을 가지며 그 애착을 통해 지탱되는 동시에 훼손되는 관계 형식이다.¹⁰⁾ 본고는 이 개념을 1920년대 중국 사회에 직접 등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근대적 약속이 예환지에게 삶의 근거가 되면서 반복적 좌절과 소진을 낳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전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잔인한 낙관주의’는 예환지가 교

9)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1. “A relation of cruel optimism exists when something you desire is actually an obstacle to your flourishing.”

10) 잔인한 낙관주의는 욕망의 대상이 놓인 역사적 내용보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형식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가 이 개념을 참조하는 것은 1920년대 중국 사회를 벌랜트가 논의한 후기 자본주의적 조건과 동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환지》에서 교육 이상이 예환지를 현실에 묶어 두는 애착 구조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예환지는 교육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도 그 이상을 포기하지 못하며, 이러한 지속적 애착은 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소진을 심화시킨다. 이 점에서 관계 안에 머무는 즐거움 자체가 그 관계의 내용과 무관하게 주체를 지속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벌랜트의 설명은, 교육 이상에 대한 예환지의 애착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Lauren Berlant, 같은 책, 2. “... and, doubly, it is cruel insofar as the very pleasures of being inside a relation have become sustaining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relation ...”

육 이상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바로 그 이상 때문에 소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기존의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설명은 예환지의 좌절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그의 이상이 왜 끝까지 포기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이 어떻게 주체를 지탱하는 동시에 무너뜨리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고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환지의 교육 이상을 근대적 낙관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학교와 향촌 사회, 혁명 공간을 거치며 어떻게 좌절과 소진의 서사로 전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잔인한 낙관주의’와 ‘실패한 성장소설’은 병렬적 틀이 아니라 위계적으로 결합된다. 곧 자기실현과 사회 개조를 한꺼번에 떠맡은 교육 이상은 예환지를 현실에 묶어 두면서도 그의 욕망이 사회적 규범으로 번역되는 것을 가로막는바, 잔인한 낙관주의가 성장 소설적 종합을 좌절시키는 동력이라면 ‘실패한 성장소설’은 그 동력이 산출하는 장르적 귀결이다. 이를 통해 《예환지》가 단순히 한 이상주의자의 실패담이 아니라, 5·4 이후 중국 근대 지식인이 직면한 계몽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문학적 사례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독법이 지니는 함의는 5·4 시기 중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적 조건에서도 교육과 자기계발은 여전히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약속하는 대상으로 기능하며,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유예되거나 좌절될 때조차 주체는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오늘날,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든다’는 교육의 약속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소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 이상이 어떻게 주체를 지탱하는 동시에 소진시키는가를 살핀 《예환지》의 서사는, 100년 전 중국 지식인의 특수한 경험을 넘어 오늘날 교육과 자기 실현의 약속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비추는 참조점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II. 실패한 성장소설로서의 《倪煥之》

기존 연구에서 박재범은 《예환지》의 서사를 길찾기의 반복적 실패와 환멸의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黃修己(이하 ‘황수기’)의 ‘幻滅小說’ 해석과 연결한 바 있다.¹¹⁾ 그러나 환멸소설론은 주체가 왜 환멸에 이르렀는지를 이상과 현실의 간극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예환지가 왜 그 간극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교육 이상을 포기하지 못하는지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본고의 ‘실패한 성장소설’은 환멸이라는 결과보다, 성장소설의 장치들이 성숙과 사회화로 축적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체의 소진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곧 그것은 교육 이상이 좌절의 확인 이후에도 예환지를 다시 실천으로 끌어들이는 역설적 작동 방식이자, 성장소설이 약속하는 화해의 구조가 작동 불능에 빠지는 장르적 귀결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예환지》는 예환지가 학교, 가정, 사회, 혁명이라는 여러 삶의 국면을 통과하며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간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외형을 지닌다. 그러나 본고에서 말하는 ‘실패한 성장소설’은 단순히 주인공이 좌절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서사가 아니라, 소명의 발견, 사랑과 결혼, 직업적 실천, 사회적 참여라는 성장소설의 주요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 경험들이 성숙이나 사회적 통합으로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주체의 소진으로 귀결되는 서사 형식을 가리킨다. 고전적 성장소설에서 성숙이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욕망과 사회화의 요구가 자기 실현의 형식으로 합치되는 과정이다.¹²⁾

11) 앞의 각주 5번 참조.

12) Jerome H. Buckley는 성장소설의 전형적 요소로 유년, 세대 갈등, 지방성, 더 넓은 사회로의 진입, 자기 교육, 소외, 사랑의 시련과 더불어 소명과 삶의 철학의 모색을 들었는데, 여기서 성숙이란 곧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사회 안에서 확정하는 일이다. Jerome Hamilton Buckley, *Season of Youth: The Bildungsroman from Dickens to Gold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18-19. “childhood, the conflict of generations, provinciality, the larger society, self-education, alienation, ordeal by love, and the search for a vocation and a working philosophy.” Franco Moretti는 이 합치를 보다

그러나 《예환지》에서 예환지가 통과하는 삶의 국면들은 그를 안정된 사회적 위치로 이끌지 못한다. 학교는 교육 이상의 실현 공간이 아니라 그 한계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고, 결혼과 가정은 새로운 생활의 기반이 되지 못하며, 혁명 공간 역시 최종적 해방의 가능성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특히 金佩璋(이하 ‘김패장’)과의 결혼은 처음에는 사랑과 교육 이상이 결합된 동지적 관계로 제시되지만, 임신과 가정생활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적 동반 관계는 약화되고, 예환지가 기대한 성장소설적 안정이나 화해 역시 실현되지 않는다.¹³⁾ 따라서 《예환지》의 실패는 결말의 비극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소설이 전제하는 성숙과 화해의 구조가 작품 내부에서 끝내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¹⁴⁾ 이 점에서 《예환지》는 성장의 단계를 밟아 가면서도 성장의 종합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한 성장소설’로 읽을 수 있다.

예환지의 성장은 처음부터 강한 이상주의적 출발을 통해 제시된다. 그는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을 단순한 취업이나 생활의 전환으로 받아들이지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 성장소설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화의 요구를 조정하는 형식이며, 고전적 성장소설의 행복은 객관적으로 완수된 사회화의 주관적 징후로 나타난다. Franco Moretti,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2000): 24 참조. “The happiness of the classical Bildungsroman is the subjective symptom of an objectively completed socialization: there is no reason to bring into question such dialectical homogeneity.”

13) 葉聖陶, 《倪煥之》, 《葉聖陶集》第三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 164-172頁 참조. 결혼 직후 예환지와 김패장은 교육 연구와 연애가 결합된 동지적 관계로 제시되지만, 임신 이후 김패장의 학교 일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고, 예환지는 결혼생활이 교육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보다 새로운 간격과 부담을 낳는 현실임을 인식하게 된다.

14) M. M. Bakhtin이 성장소설의 특질로 지목한 ‘주인공의 형성과 역사적 세계의 형성 결합’ 역시, 이러한 조정이 한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가리킨다. 《예환지》는 바로 이 역사적 형성의 차원에서 종합에 도달하지 못한다. M. M. Bakhtin,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Realism*,” in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6): 10-59 참조.

않는다. 그에게 학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이며, 교육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실천의 장이다. 작품 초반에서 그는 “아! 도착했다. 새로운 생활이 이제부터 막을 여는구나!”¹⁵⁾라고 말한다. 이 발화는 예환지의 출발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새롭게 조직하려는 결단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생활’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는 학교를 근대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로 상상하며, 학생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예환지의 이상은 특히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구체화된다. 작품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교육 사업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길러져야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 — 여기에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한다.”¹⁶⁾

이 구절은 예환지의 교육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은 제도적 기능이나 직업적 업무가 아니라, 인간의 형성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상적 실천이다. 예환지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은 곧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과업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는 그의 이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투명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는 동료 교사들의 냉소, 학생들의 무감각, 제도적 관성, 향촌 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그의 성장 서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로 전환된다.

작품 중반부에서 그의 낙관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모든 희망은 교육에 걸려 있는데, 교육계 안에

15) 葉聖陶, 《倪煥之》, 앞의 책, 10頁. “啊! 到了, 新生活从此开幕了!”.

16)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5頁. “教育事业是培养‘人’的, ——‘人’应该培养成什么样子? ‘人’应该怎样培养? ——这非有理想不可.”

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¹⁷⁾

이 구절은 예환지의 내적 균열을 잘 보여준다. 교육은 여전히 “모든 희망”이 걸린 대상이지만, 그 희망이 놓인 현실은 이미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교육적 방향을 포기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무응답 속에서 동일한 실천을 반복할 뿐이다.

蔣冰如(이하 ‘장빙여’)의 교육 의견서로 대표되는 그들의 교육 이상은 주변 인물들에게 “선산누각”, 곧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폭의 공상적 그림으로 취급될 뿐이다.¹⁸⁾ 이 장면은 성장소설의 핵심 조건인 ‘세계와의 생산적 교섭’이 그의 서사에서 좌절됨을 보여준다. 예환지는 세계와 만나지만, 그 만남은 자기 인식의 성숙이나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상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으로 귀결된다.

작품 후반부에서 예환지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친 첫 학급”의 학생들의 성과를 묻는 물음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한다.¹⁹⁾ 이 고백은 교육 이상이 단번에 붕괴하는 순간이 아니라, 교육 실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예환지》에서 실패는 결말부에 갑자기 도래하는 사건이 아니라, 서사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이다. 예환지는 매번 다시 실천하려 하지만, 그 실천은 안정된 성과로 축적되지 못한 채 좌절의 범위가 학교에서 향촌·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갈 뿐이다. 그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이상에서 환멸로, 희망에서 소진으로 이동

17)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97頁. “怎么好呢? 一切希望悬于教育; 而教育界里却有这样严重的问题.”

18)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70頁. “明明告诉人说那是空想的, 不是人间实有的境界, 只不过叫人看着好玩而已. 冰如这一篇文章就是一幅仙山楼阁.”

19)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197-198頁. “成效么? 第一班用新方法教的学生最近毕业了, 也看不出什么特殊的地方. 我想, 待他们进了社会, 参加了各种业务, 才看得出到底与寻常学生有没有不同: 现在还没遇到试验的机会.”

하는 인물이다. 그의 실패는 세상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점에서 《예환지》의 서사는 “경험을 통한 성숙”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이상 붕괴”의 구조를 지닌다.

III. 교육 이상과 잔인한 낙관주의

본 장은 교육 이상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는가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왜 예환지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약속이 되었는가를 묻는다. 교육은 예환지에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할 대상이며, 바로 그 때문에 교육의 실패는 단순한 직업적 좌절이 아니라 주체 전체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육이 예환지에게 ‘좋은 삶’의 약속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 약속이 잔인한 낙관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살펴본다.

벌랜트는 욕망의 대상을 단순한 사물이나 목표가 아니라 주체가 그것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약속들의 묶음”으로 이해한다.²⁰⁾ 이 관점에서 예환지에게 교육은 단순한 직업적 목표가 아니라 자기실현, 사회 개조, 새로운 인간 형성의 가능성을 모두 떠맡은 약속의 대상이며, 그 약속의 실패는 단순한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주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예환지》에서 교육은 예환지를 살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그를 소진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환지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상을 전제한 ‘사람을 기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본 장이 주목하는 것은

20) Lauren Berlant, *Cruel Optim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23. 욕망의 대상을 “a cluster of promises”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잔인한 낙관주의를 “A relation of cruel optimism exists when something you desire is actually an obstacle to your flourishing”라고 정의한다. 같은 책, 1.

이 신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이다. 그는 한때 교사 생활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미건조한 일”로 여기기도 했지만, 한 동료 교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뒤 교육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관념이 한번 바뀌자 모든 것이 변했다. 곁에 있는 학생들은 더 이상 더럽고 혐오스러운 아이들이 아니었고, 네모반듯한 교실은 더 이상 생기 없는 감옥이 아니었다.”²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념이 한번 바뀌자 모든 것이 변했다”는 인식이다. 현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 이상은 예환지의 현실 인식을 재구성하는 수행적 힘으로 작동하며, 그가 현실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기 삶에 방향을 부여하는 방식이 된다.

학교에 도착한 뒤 예환지는 장빙여를 만나면서 자신의 교육 이상을 더욱 강화한다. 장빙여는 학교를 기존의 관습적 교육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형성을 위한 실험장으로 만들고자 하며,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로움을 얻게 해야 한다”²²⁾고 주장한다. 예환지는 이를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학교와 향촌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실천적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이 믿음은 장빙여와 함께 향촌 개조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가장 낙관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21)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7頁. “我那同事就觉得自己的生活很充实, 很满意, 而我正同他一样, 当着教员, 难道我不能得到他所得到的感受么? 能, 能, 能, 我十二分地肯定. 观念一变, 什么都变了: 身边的学生不再是龌龊可厌的孩子; 四方方的教室不再是生趣索然的牢狱.”

22)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52頁. “里头主张替儿童布置一种适宜的境界, 让他们生活在里面, 不觉得勉强, 不自然, 却得到种种的好处. 这是一切方法的根本.”

“우리의 앞날에는 큰 희망이 있다. 우리가 힘을 들인 만큼 보답도 얻을 것이다. 빈말로 나라를 개량하겠다, 사회를 개량하겠다고 해 보아야 아무 효과가 없다. 작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확실한 파악이 있다.”²³⁾

이때 교육은 예환지에게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실천의 근거가 된다. 바로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희망의 실패는 곧 삶 전체의 실패로 체험되며, 현실의 모순이 드러날수록 더 깊은 고통이 발생한다.

잔인한 낙관주의의 핵심은 희망이 단순히 좌절되는 데 있지 않다. 주체는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예환지는 학교 개혁에서 여러 결함과 한계가 드러날 때에도, 개혁이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원칙은 옳으며, 다만 실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예리하게 감지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상 속에서는 아주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도, 실현될 때에는 할인되고 만다”고 깨닫는다.²⁴⁾

이 고백은 예환지의 교육 낙관이 균열되기 시작하는 장면이다. ‘할인(折扣)’이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이상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손상되고 축소된 형태로만 나타날 뿐이며, 예환지는 그 손상된 결과를 보면서도 “원칙”은 여전히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 바로 ‘훼손 속의 보존’이라는 모순이 그를 소진시키는 동력이다.

이후 예환지는 앞서 확인한 바(II장) 교육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마주

23)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48頁. “所以我们的前头很有希望. 我们的力量用多少, 得到的报酬就有多少. 空口说大话, 要改良国家, 要改良社会, 是没有什么效果的, 从小处切近处做起, 却有确实的把握.”

24)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127頁. “理想当中十分美满的, 实现的时候会打折扣!”

하면서, 모든 희망이 걸린 교육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자각한다. 만약 교육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했다면 그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나, “모든 희망”이 걸린 대상이기에 교육계의 타락과 무능, 교사들의 무기력, 제도적 한계는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결국 예환지의 교육 이상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를 무기력한 현실에서 구해 내어 학교와 학생과 향촌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으로서 그를 계속해서 현실의 장벽 앞에 세우는 힘이다. 그는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실천하고, 실천하기에 계속해서 좌절한다. 따라서 그의 비극은 희망의 부재가 아니라 희망의 과잉에서, 곧 그 희망이 삶의 전체 의미를 떠맡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예환지》에서 교육 이상은 예환지에게 삶의 근거이자 소진의 근원이다.

IV. 계몽의 좌절과 주체의 소진

앞 장이 교육 이상이 예환지에게 어떻게 삶의 약속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 장은 그 약속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예환지》에서 교육 이상의 좌절은 추상적인 ‘현실’과의 충돌이 아니라, 학교 안의 신분 질서, 교사 집단의 냉소, 학교 밖의 조직된 사회 구조, 혁명 공간의 폭력과 배신이라는 구체적 장면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본 장은 예환지의 소진을 개인적 나약함이나 단순한 환멸로 보지 않고, 그의 계몽 언어가 각기 다른 사회적 힘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1. 학교 공간과 계몽 언어의 무력화

예환지가 처음 도착한 학교는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이자 이상 실현의 장소였으나, 곧 그가 상상한 투명한 교육 공동체가 아님이 드러난다. 동료들(徐佑甫-이하 ‘서우보’와 陸三復-이하 ‘육삼복’)은 직업적 안정을 우선시 하며, 학생들(蔣華-이하 ‘장화’와 方裕-이하 ‘방유’) 또한 가정과 향촌에서 익힌 신분적 감각을 학교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다. 예환지가 마주한 학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면서도 기존 사회 질서가 축소, 재현되는 공간이다.

이 점은 학생들 사이의 문벌 의식과 신분 차별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학교 안에서는 사상가들이 그려낸 극락 국토나 대동세계에서처럼 귀천과 빈부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병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²⁵⁾

예환지는 학교를 현실 사회와 다른 윤리적 공간으로 상상하지만, 실제 학교 안에서는 부유한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난한 학생들은 순종하거나 침묵한다. 학교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보다 기존 위계를 재생산하는 상징적 폭력의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은 Pierre Bourdieu(이하 ‘부르디외’)와 Jean-Claude Passeron(이하 ‘파스롱’)의 재생산론과 연결된다.²⁶⁾ 《예환지》의 학교 역시 예환지가 기대한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라, 향촌 사회의

25)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61頁. “在学校里, 犹如在那些思想家所描的极乐园土大同世界一样, 应该无所谓贵贱贫富的差别, 而现在竟有这样现象, 不能说不毛病.”

26) Pierre Bourdieu and Jean-Claude Passeron,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 Richard Nice, London: Sage, (1990): 195. “the educational system legitimates the transmission of power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conc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tarting point and social point of arrival...”

신분 질서가 학생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재현되는 공간이다.

이 문제는 장화와 방유의 충돌 장면에서 구체화된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린 목수일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나리’,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물건을 주워야 하는 것은 그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다!”²⁷⁾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모욕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장화가 방유를 “목수의 아들”, “어린 목수”로 호명하는 방식이다. 이 호명은 방유를 교육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특정 직업과 가문에 종속된 존재로 고정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나리’, ‘도련님’이라 부른다”는 발언은 학교 안의 갈등이 학생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직업, 재산, 지역 권력이 얽힌 사회적 관계의 재현임을 보여준다. 예환지가 변화시키고자 한 것은 학생 개인의 태도였으나, 실제로 그 앞에 나타난 것은 학생의 언어와 몸짓 속에 이미 스며든 사회 구조였다.

동료 교사들의 냉소는 예환지의 계몽적 신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한결같이 감화만 말하다가, 오히려 학생을 위선에 능하고 거리낌 없는 존재로 감화시킬 줄을 처음에 누가 알았겠는가!”²⁸⁾

예환지에게 학생은 처벌보다 이해와 설득으로 변화 가능한 주체이지만, 동료 교사들에게 학생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서우보는 나아가 장빙여의 교육 의견서를 두고 학교가 “잡기 공연장”이 될 뿐이라고 비웃는다.²⁹⁾ 결

27) 葉聖陶, 《倪煥之》, 《葉聖陶集》第三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 64頁, “他是木匠的儿子, 是小木匠! 他的父亲叫我们‘老爷’‘少爷’! 只该他给我们捡东西!”

28)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75頁, “一味讲感化, 却把学生感化得善于作伪, 无所忌惮, 起初谁又料得到!”

29)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75頁, “布置适宜的环境呀, 学校要象个社会呀, 象这份意见书里所说的, 听听又何尝不好, 但是如果实做起来, 我料得到将成怎么

국 예환지의 교육 개혁은 학교 전체의 협력을 요구하지만, 그의 계몽 언어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지 못한 채 일부 이상주의자의 언어로 고립된다.

2. 사회 구조의 저항과 교육 실천의 한계

학교 내부의 냉소와 무관심은 예환지의 좌절을 낳는 첫 번째 조건이지만, 《예환지》가 더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은 학교만 바꾸어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왕락산의 발언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제기된다. 그는 예환지의 이상을 단순히 비웃는 인물이 아니라, 교육 개혁이 마주한 사회적 조건을 냉정하게 지적하는 비판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는 조직된 것”이라는 명제는 1920년대 중국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계몽의 한계 곧 ‘대중’이 계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식인의 언어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타자로 남아 있던 상황을 대변한다.³⁰⁾

“그들이 사회에 들어가 여러 일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사회에 삼켜져 조금도 특별한 점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사회는 조직된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비교적 보기 좋은 잔가지에 불과하다. 그 정도를 주고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치스러운 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¹⁾

왕락산의 비판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예환지의 교육관이 전제한 변

个情形……学校成了个杂耍场, 在里边挨挨挤挤的学生无非是游客……我教功课只要问心无愧……”

- 30) 안인환, <1920·3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중’ 담론 연구-대중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지식인 자리 찾기>, 《中國現代文學》 제52호, 2010, 29-30쪽 참조. 이종민, <20세기 중국, 공화정치의 실현인가 구경꾼의 반란인가-루쉰의 국민성 담론을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57호, 2011, 71-72쪽 참조
- 31) 葉聖陶, 《倪煥之》, 《葉聖陶集》 第三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 198頁. “他们进了社会,参加了各种业务,结果是同样地让社会给吞没了,一毫也看不出什么特殊的地方.要知道社会是个有组织的東西,而你们教给学生的只是比较好看的枝节,给了这一点儿,就希望他们有所表现,不能说不是一种奢望.”

화의 경로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결국 “사회에 삼켜져”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삼켜진다(吞沒)”는 표현은 개인의 선의나 교육적 경험의 사회 구조 안에서 흡수·소멸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사회는 조직된 것”이라는 말은 교육의 실패가 방법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교육보다 더 강한 제도적·계급적 힘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을 드러낸다.

작품은 예환지의 내면이 흔들리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감정적으로는 이 비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의 절반은 저도 모르게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³²⁾

예환지가 “마음의 절반”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는 묘사는 그의 좌절이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상의 한계에 대한 내적 승인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그동안 그는 동료 교사들의 냉소를 무지나 편견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왕락산의 비판은 교육 실천 자체의 한계를 이성적으로 제기하기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왕락산의 발언은 예환지의 계몽적 확신이 내부로부터 균열되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왕락산은 나아가 사회를 바꾸려면 부분적 교육 개혁이 아닌 조직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환지는 교육적 계몽에 자신의 삶을 걸었으나, 현실은 점차 조직적 운동의 필요성을 강요한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보듯, 이 이동은 안정된 해결책이 아니라 그의 소진을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3. 혁명적 열기와 최종적 소진

예환지가 교육의 한계를 절감한 뒤 향하는 곳은 혁명적 열기로 들끓는

32)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198頁. “在感情上, 他不愿意相信这个批评是真实的, 但一半儿的心却不由自主地向它点头.”

사회 공간이다. 기존 연구가 왕락산이 대변하는 조직적 혁명의 길을 예환지가 끝내 도달하지 못한 ‘올바른 출구’로 읽어 온 것과 달리³³⁾ 본고는 혁명을 교육 이상의 대안이 아니라 교육이 떠맡았던 약속을 물려받은 또 하나의 약속의 대상으로 본다. 혁명 역시 좋은 사회를 약속하기에, 그 좌절은 다시 한번 주체 전체의 붕괴로 체험되며, 따라서 작품은 이 혁명 공간 역시 순수한 해방의 장소로 그리지 않는다. 정치적 구호, 조직적 동원, 집단적 분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동시에, 폭력과 배신을 통해 개인의 신념을 파괴하는 힘으로도 작동한다.

예환지는 이제 학교 제도 안의 점진적 개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학교 당국은 이미 “파산”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한다.³⁴⁾ 그는 학생운동의 열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왕락산의 자극을 통해 문제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전환이 그에게 안정된 해답을 준 것은 아니다. 혁명적 실천에 대한 참여의 욕망은 그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뿐, 뒤에서 보듯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혁명 공간은 처음에는 학교보다 더 강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지닌 듯 보이나,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분노와 연대의 장소에서 폭력과 공포의 장소로 변질된다. 왕락산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예환지는 하늘 가득 보이지 않는 ‘선고문’이 걸려 있는 듯한 환각 속에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존재다!”³⁵⁾라는 문구를 읽는다. 이는 외부 인물의 냉소가 아니라 예

33) 박재범, 〈葉紹鈞의 《倪煥之》, 成長小說로서의 可能性〉, 《中國現代文學》 제15호, 1998, 67쪽 참조; 潘懋元, 〈从中国现代教育史的角度看《倪煥之》〉, 《厦门大学学报》 1963年 第1期. 劉增人·馮光廉 編, 《葉聖陶研究資料》,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522頁 참조, “倪煥之的悲劇性的收場, 其不幸的原因也正是由于有抽象的认识, 有充沛的热情, 却欠缺实际斗争的锻炼, 经不起波折.”

34)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221頁. “一班学校当局, 这时候已经宣告破产, 再也抓不住学生的心, 学生跑在前头, 面对着光明, 学校当局却落在后头, 落得很远很远, 专想抛出绳子去系住学生的脚.”

35)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259頁. “人是比兽类更为兽性的东西!”

환지 자신의 붕괴하는 내면이 만들어낸 환각적 투사라는 점에서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절규는 예환지의 계몽적 믿음이 근본적으로 붕괴하는 순간이다. 교육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 공간의 폭력은 그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리며, “아름다운 이름과 구호”가 폭력을 은폐하는 장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교육·계몽·역사 진보라는 모든 어휘로부터 안정된 의미를 박탈한다.

특히 왕락산의 죽음은 예환지의 주체 소진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킨다.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인물이 혁명적 폭력 속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소식이 전해졌다. 왕락산은 쌀을 담은 삼베 자루 속에 넣어진 채, 사방에서 칼로 찢려 뜨거운 피가 거의 다 흘러 나왔을 때에야 어느 강물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었다.”³⁶⁾

이 죽음은 한 동지의 상실을 넘어 교육적 계몽에서 혁명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가능성의 붕괴를 뜻한다. 왕락산이 권유했던 역사적 실천의 공간조차 폭력과 공포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예환지는 분노와 증오, 슬픔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을 다시 실천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그는 자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향촌 사범 계획의 초고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가 점점 닳았고, 마침내 서랍 구석에 던져졌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몸이 되었지만, 분노와 원한, 슬픔과 공포 같은 온갖 연료에 의해 끓여지고 있었다.”³⁷⁾

36)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259-260頁. “消息传来, 乐山是被装在盛米的麻布袋里, 而用刮刀周围刺戳, 直到热血差不多流完了的时候, 才被投在什么河里的。”

37) 葉聖陶, 《倪煥之》 같은 책, 260頁. “他自然是无所事事了, 乡村师范计划的草

향촌 사범 계획의 초고가 주머니 속에서 닳다가 서랍 구석에 던져지는 과정은 교육 이상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종이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설계도가 아니라 소진된 이상이 남긴 흔적일 뿐이다. 또한 분노, 원한, 슬픔, 공포라는 감정 역시 그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를 끓이고 태우는 '연료(燃料)'로 전환된다. 이때 예환지의 소진은 심리적 우울이 아닌, 교육과 혁명이라는 두 약속이 모두 무너진 뒤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을 형식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4. 계몽 주체의 소진과 실패한 성장의 완성

예환지의 계몽은 세 단계에서 좌절된다. 첫째, 학교 안에서 그의 교육 언어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둘째, 학교 밖 사회의 구조는 교육 실천의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혁명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끝내 폭력과 공포를 통해 예환지의 역사적 믿음 자체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예환지의 주체 소진은 단순한 심리적 우울이나 개인적 나약함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는 계속해서 현실에 응답하려 했다. 학생을 감화하려 했고, 학교를 바꾸려 했으며, 향촌 사회를 개조하려 했고, 혁명적 사건 속에서도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매번 다른 층위의 현실에 의해 좌절된다. 학교는 사회를 그대로 반복하고, 사회는 개인의 선의를 삼키며, 혁명은 인간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의 장면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예환지》의 후반부는 실패한 성장소설의 구조를 완성한다. 성장소설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세계와 충돌하면서 자신과 현실의 관계를

稿紙藏在衣袋里，渐渐磨损，终于扔在抽斗角里。以无所事事之身，却给愤恨呀，仇怨呀，悲伤呀，恐怖呀，各式各样的燃料煎熬着。”

재구성한다. 그러나 예환지는 세계와의 충돌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다. 그는 세계를 이해할수록 더 깊이 소진되고, 현실의 구조를 깨달을수록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그의 인식은 깊어지지만, 그 인식은 삶을 조직하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믿어 온 이상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예환지의 비극은 교육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단순한 결론에 머물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이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냉소적 현실주의자가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조직적 힘을 갖추지도 못했다. 교육자로서 그는 사회의 구조적 힘 앞에서 무력했고, 혁명적 주체로서 그는 폭력의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므로 그의 파산은 한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5·4 이후 근대 중국 지식인이 품었던 계몽적 낙관이 현실 속에서 겪은 구조적 한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환지》는 “교육을 통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과 계몽의 약속이 좌절되면서 근대적 주체가 어떻게 소진되는가를 보여주는 실패한 성장의 서사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엽성도의 《예환지》를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벌랜트의 ‘잔인한 낙관주의’ 개념을 통해 ‘실패한 성장소설’로 재해석하였다. 예환지에게 교육은 자기실현과 사회 개조를 동시에 약속하는 근대적 실천이었기에, 그 좌절은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주체 전체의 소진으로 귀결되었다.

환멸론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라는 ‘결과’에 주목한다면, 잔인한 낙관주의는 주체가 그 간극을 확인하고도 이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 자체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예환지의 죽음을 이상의 패배가 아니라 그

를 지탱해 온 약속에 의한 소진으로 다시 읽었다.

이는 《예환지》를 5·4 이후 중국 근대 지식인이 공유한 계몽적 낙관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문학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한 작품에 국한된 사례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며, 동시에 지식인 서사 및 환멸 소설과의 비교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끝으로, 이러한 독법은 5·4 시기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다. 자기계발과 교육이 여전히 좋은 삶에 대한 강력한 약속으로 기능하고, 그 약속이 좌절되어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주체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재범, 〈葉紹鈞의 《倪煥之》, 成長小說로서의 可能性〉, 《中國現代文學》 제15호, 1998, 57-73쪽.
- 안인환, 〈1920·30년대 중국 지식인의 ‘대중’ 담론 연구-대중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지식인 자리 찾기〉, 《中國現代文學》 제52호, 2010, 27-54쪽.
- 이종민, 〈20세기 중국, 공화정치의 실현인가 구경꾼의 반란인가-루쉰의 국민성 담론을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57호, 2011, 65-94쪽.
- 劉增人·馮光廉編, 《葉聖陶研究資料》,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8.
- 葉聖陶, 《倪煥之》, 《葉聖陶集》 第三卷,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7.
- Bakhtin, M. M.,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Realism,” in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trans. Vern W. McGee, ed.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6.
- Berlant, Lauren, *Cruel Optim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 Bourdieu, Pierre, and Jean-Claude Passeron,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trans. Richard Nice, London : Sage, 1990.
- Buckley, Jerome Hamilton, *Season of Youth: The Bildungsroman from Dickens to Golding*,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Chow, Tse-tung, *The May Fourth Movement: Intellec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Lin, Yu-sheng,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 Moretti, Franco,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2000.
- Schwarcz, Vera, *The Chinese Enlightenment: Intellectuals and the Legacy of the May Fourth Movement of 191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Ye Shengtao's *Ni Huanzhi* not as a conventional Bildungsroman, but as a failed Bildungsroman in which a modern intellectual committed to educational ideals is gradually exhausted through repeated confrontations with realit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novel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the Bildungsroman or the conflict between ideal and real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nature of Ni Huanzhi's educational ideals.

For *Ni Huanzhi*, education is not merely an occupation but a modern

practice that promises self-realization, social reform, and the formation of a new human being. In this sense, his educational ideal reflects the optimistic faith in enlightenment shared by Chinese intellectuals after the May Fourth New Culture Movement. However, this ideal also functions ambivalently: it sustains him as a source of hope while driving him toward repeated frustration and exhaustion. To explain this paradox, this paper draws on Lauren Berlant's concept of "cruel optimism."

Ni Huanzhi attempts to transform students, the school, and rural society through education. Yet his enlightenment discourse is repeatedly undermined by the inertia and cynicism of fellow teachers, class hierarchy among students, the organized power of society, and the violence of revolutionary politics. Thus, his collaps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personal weakness. Rather, it emerges from the repeated failure of educational hope when confronted with concrete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Ultimately, *Ni Huanzhi* assumes the form of the Bildungsroman while refusing its logic of maturity and integration. *Ni Huanzhi* passes through school, family, society, and revolutionary space, but these experiences do not lead to self-realization or reconciliation with the world. Instead, they reveal the impossibility of realizing his educational ideals and lead to the exhaustion of the modern subject. In this sense, the novel gives literary form to the limits of May Fourth enlightenment optimism and the difficulty of forming a stable modern subject in modern Chinese history.

Key Words : 예환지(Ni Huanzhi), 엽성도(Ye Shengtao), 실패한 성장소설 (failed Bildungsroman), 잔인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 교육 계몽(educational enlightenment)

